

## 김병익의 초기 대중문화론과

### 4.19 세대의 문화민주주의

송은영\*

1. 『문학과지성』과 김병익의 자리
2. 자기비판적 거울로서의 대중문화 현상
3. 청년문화 옹호론 : 퇴폐와 자유의 대중문화
4. 문화민주주의 : 문화의 평등과 대중문화의 역할

#### 국문요약

이 글은 1970년대를 대표하는 계간지 『문학과지성』의 동인이었던 김병익의 대중문화론을 중심으로, 1970년대 문단과 그 기반으로서의 4.19 세대의 자의식과 감수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구도를 극복하고자 했다. 김병익의 대중문화론은 지금까지 엘리트주의, 보수주의, 문학주의 등의 키워드와 함께 논의되었던 『문학과지성』의 감수성과 세대의식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중문화를 저속하고 퇴폐적이라고 비판하는 당시의 지배적인 관점을 전복시키지 않으면서도, 대중문화의 퇴폐성과 저속성을 비판할 때조차 그 근원을 엘리트문화의 타락과 상업주의에서 찾음으로써 대중문화를 주류 엘리트의 문화와 결합시키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중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청년문화에 대해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가시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그가 대중문화에서 근대적 시민의식에

---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Plus 연구교수

기반한 문화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찾았다는 사실은, 4.19세대의 문화적 감수성이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사회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지향성 속에서 정초되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김병익, 문학과지성, 4.19세대, 대중문화, 청년문화, 정치적 자유, 사회적 평등, 문화민주주의)

## 1. 『문학과지성』과 김병익의 자리

1960-70년대 문학인들이 형성한 문학과 문화의 지형은 현재 한국문학의 논리, 문화적 감수성, 지적 풍토 등에 가장 직접적인 기반이 되어 있다. 특히 이 시기에 태동하고 만개한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세계의 문학』 등이 주도한 계간지 문화와 그 동인들의 활발한 활동이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창작과비평』의 백낙청, 염무웅, 『문학과지성』의 김현, 김병익, 김주연, 김치수, 『세계의 문학』의 김우창, 유종호 등은 시들지 않는 문학적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발휘하고 있고, 이들이 발굴하고 비평한 작품들은 한국 문학사의 정전이 되었으며, 심지어 이들의 번역까지도 당대 문화와 지성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김윤식이 “이 세 개의 계간지의 출현은 ‘무정’ 이래의 위대한 시대를 이루어내었다. 1970년대 이래 이 나라 문학사의 기틀은 이로써 이루어졌다”<sup>1)</sup>고 단언할 만큼, 이 시기 계간지 동인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쇠퇴하지 않고 있다.

그 중 1970년 첫발을 내딛은 『문학과지성』(이하 『문지』로 약칭)은 4.19 세대의 문학적 논리와 문화적 감수성의 전범처럼 여겨져왔다. 일찍

1) 김윤식, 『3대 계간지가 세운 문학의 기틀』, 역락, 2013, 7쪽.

이 김현이 60년대 중반 이후 등단한 젊은 문학인들을 포괄하여 “65년 세대”<sup>2)</sup>로 명명했던 이 세대는, 잘 알려져 있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해방 이후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한글로 교육받은 ‘한글세대’,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민주주의를 현실화시킨 ‘4.19 세대’로 자랑스럽게 재명명되었다. 오늘날 소위 ‘4.19 세대’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논의에서 『창작과비평』이나 『세계의 문학』보다 『문지』가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은, 4.19 세대를 문화적으로 범주화하고 명명한 장본인 김현이 『문지』의 동인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동시대의 다른 문학인들에게 4.19 세대로서의 아예 특성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도 아니다.<sup>3)</sup> 그보다는 『문지』의 언어의식과 감수성, 현실인식 등이 다른 문인 그룹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4.19 세대로서의 뚜렷한 자의식 아래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문지』가 형성한 문학의 논리는 1966년 창간된 『창작과비평』(이하 『창비』로 약칭)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파악되어 왔다. 후대의 연구자들<sup>4)</sup>뿐만 아니라 『문지』 동인들조차 한국 최초의 계간지 『창작과비평』

2) 김현, 『1968년의 작가상황』, 『사상계』, 1968년 12월호. 이 명칭은 김승옥 등을 상찬한 이어령의 용어 “제 3세대”와 구분짓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 글에서 “55년대 작가”로 명명된 서기원이 반발하면서 세대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3) 지금까지 4.19 세대에 대한 논의가 『창비』와 『문지』의 동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세계의 문학』의 주요 동인인 김우창, 유중호가 1950년대 중반 대학에 입학하여 5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비평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문학과지성』에 대한 2000년대 이후의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하상일, 『전후비평의 타자화와 폐쇄적 권력지향성: 1960-70년대 '문학과지성', 『한국문학논총』 제 36집, 2004; 전상기, 『1960·70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 '문학과 지성'·'창작과 비평'의 분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3; 하상일, 『김현의 비평과 『문학과지성』의 형성과정』, 『비평문학』 제 27호, 2007; 권오룡, 『주체성과 언어의식: 『문학과지성』의 인식론』, 『인문논총』 제 10집, 2010; 김민정, 『1970년대 '문학 장'과 계간지의 부상: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11; 박운영, 『『문학과지성』의 형성과정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2012; 곽상순, 『계간 『문학과지성』이 1970년대 한국소설에 끼친 영향 연구: 김현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55집, 2012; 박수현, 『1970년대 계간지 『문학과지성』 연구: 비평의

의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대타적인 위치에 자신들이 있다고 스스로 표명한 바 있다.<sup>5)</sup> 『창비』와 『문지』의 대립을 ‘순수/참여’문학의 대립으로 생각하던 ‘리얼리즘/모더니즘’의 대립으로 계열화시키든 또는 ‘민족문학론’과 ‘문학주의’의 대립으로 구분하든 간에, 『문지』를 『창비』에 대한 대타의식 속에서 출발한 잡지로 규정하는 방식은 1970년대를 양분한 두 계간지에 대한 평가를 이러한 이분법 속에 가두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문지』가 문학 또는 문화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 그리고 개인의 비판적 지성과 반성적 성찰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전개했던 모색들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한 결과 만들어진 정체성이다.

실제로 1970년대 초반의 『문지』와 『창비』를 읽어보면 양자 간의 차이와 대립은 예상과 달리 그다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sup>6)</sup> 두 계간지는 초기에 서로 다른 지향점을 시사하면서도, 문학텍스트에 대한 비평,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사회현실과 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문지』가 고풍한 문학텍스트의 맥락에

식의 심층구조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 33집, 2009.

- 5) 김병익은 『창작과비평』의 공헌으로 가로짜기 편집, 긴 글의 전재를 마다않는 활기찬 편집방침, 편집진들이 작가를 뽑는 방식 등을 꼽으면서 그들의 “개척자적인 노력”을 크게 평가했다. 그는 ‘문지’가 ‘창비’와 “거의 반대”라고 하면서도 1970년대 후반까지도 어떤 면에서 반대인지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김병익, 『계간지 문화의 의미』, 『문화와 반문화』, 문장사, 1979, 201-204쪽. 그러나 그는 1990년대 초 『문화과지성』을 창간하게 된 과정을 회고하면서 김현이 1968년 ‘참여/순수 논쟁’ 당시 “순수문학론을 옹호하고 있었고 참여론을 주창하는 ‘창비’에 맞서 문학적 자율성을 견지할 새로운 동인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김병익, 『김현과 ‘문지』, 『열림과 일곱』, 문화과지성사, 1991, 339쪽.
- 6) 홍정선은 1983년 『문학의 시대 1』에 발표한 글에서 “『창비』와 『문지』의 비평 행위는 상호간의 공통된 소재적 관심사 속에서 어느 정도 일치점을 지닐 수 있었”으며, 그것이 결국 “소재적 차원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양자 간의 간극이 197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벌어지기 시작한 이후에야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는 홍정선, 『70년대 비평의 정신과 80년대 비평의 전개양상』, 『역사적 삶과 비평』, 문화과지성사, 1986, 16-23쪽 참조.

서 들여다보면, 『문지』의 문학적 감식안은 ‘창비’의 민족문학론이 관장하는 범위를 망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새로운 작품의 발굴과 이미 다른 잡지에 실린 작품들을 선별하는 ‘재수룩’을 병용한 『문지』의 편집원칙은,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와 『장마』,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과 『낙타누갈』,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문구의 『관촌수필』과 『우리 동네』 등을 포괄했다. 이 작품들은 『창작과비평』 동인들이 열렬히 지지했던 방영웅의 『분례기』나 이정환의 『셋강』, 김춘복의 『쌈짓골』 대신 1970년대 민중문학의 대표작이자 정전이 되었다.<sup>7)</sup> 또한 최인훈의 『광장』은 『창비』의 맹렬한 공격<sup>8)</sup> 속에서도 ‘문화과지성사’를 통해 ‘창비’가 주창한 분단시대 문학의 상징적 작품으로 살아남았다. 『문지』의 문학주의 신화는 민중주의의 거센 공세 속에서도 동인과 편집인들이 민족문학론의 주장에 대해 열린 태도를 견지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김윤식의 구도대로 『세계의 문학』까지 함께 생각하여 “70년대의 문학관이 계간지가 주도한 3분법이였다”<sup>9)</sup>고 보면 『문지』의 입지는 더욱 모호해 보인다. 『문지』의 활동은 『세계의 문학』의 활동과 많은 부

7) 이외에도 『창비』에 전채된 다른 장편으로 이문구의 『장한몽』이 있다.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작 중 일부는 『창비』에도 게재되었다. 『창비』가 독자적으로 발굴한 가장 대표적인 민중문학의 정전으로는 황석영의 『객지』(『창작과비평』 1971년 봄호)를 들 수 있다.

8) 최인훈의 『광장』에 대한 『창비』의 가혹한 비판으로는, 김병욱, 『현대 소설에 투영된 역사 의식』, 『창작과비평』, 1973년 봄호 참조. 『광장』은 3년 후인 1976년 문화과지성사에서 개작된 판본으로 출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호철의 『판문점』과 방영웅의 『분례기』를 고평한 김병욱의 글은 『광장』이 “작중현실과 동떨어진 궤변, 관념의 유희”에 불과하며 “민족의 역사를 발전적, 적극적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고 폐쇄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다고 보았는데, 『광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보는 이 관점은 1980년대 민중문학론에서도 다시 반복되었다.

9) 김윤식, 앞의 책, 201쪽.

분 겹쳐 있다. 양강 구도에 끼어든 후발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문지』 및 『창비』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처럼 간주되기도 했던 이 계간지는, 서구의 인문주의 교양과 “심미적 이성” 또는 “현실주의 상상력”에 입각하여 한국문학의 창작 장려와 비평 활동, 이론의 수입 등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문지’와 뚜렷하게 선을 긋기 힘들다. 그리고 『세계의 문학』을 통해 처음 소개된 골드만의 문학사회학이나 80년대 중후반에 자주 다룬 푸코의 이론 등은 『문지』 동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론적 관심사이자 비평적 방법론이기도 했다.<sup>10)</sup> 김윤식은 『세계의 문학』이 “『영자의 전성시대』(1974)의 대중성(통속성)의 한계를 직감한 민음사 박맹호 사장의 탁월한 감각” 아래 “적절한 대중성”을 추구한 계간지라고 보았다.<sup>11)</sup> 그러나 김윤식과 홍정선이 모두 지적하고 있듯이 대중성 또는 상업성의 길은 세 계간지 모두가 추구한 길이기도 했다. 1970년대를 풍미한 이 세 계간지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 4.19 세대의 자의식과 감수성은 문학주의, 민중주의, 상업주의라는 삼각 구도 안에서 어떤 입지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그 삼각구도와 구별의 기준들은 어떻게 해체될 수 있을까?

이 글은 1967년 등단하여 현재까지 거의 50여 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병익의 글들 중에서도,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

10) 골드만의 방법론을 텍스트 분석에 사용한 김병익의 평론 『대립적 세계관과 미학·조세회의 『난장이』』(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1978)와 푸코에 대한 김현의 저서 『시칠리아의 암소』(문학과지성사, 1990)가 대표적인 예이다.

11) 1970년대 매체 연구가 거의 『창비』와 『문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의 문학』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한 연구가 없다. 그러나 김윤식은 『세계의 문학』이 『창비』와 『문지』의 대립구도를 지양하고 새로운 대중성을 추구하며 등장했고 보고 있으며, 이 점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세계의 문학』이 주최한 제 1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자인 한수산의 『부초』, 박영환의 『머나먼 송바강』 등을 들고 있다. 김윤식, 앞의 책, 170-189쪽. 이 글은 김윤식의 이러한 관점에 대한 부분적인 반박에 해당한다.

지 초기 대중문화론을 대상으로 이러한 질문을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그렇다면 왜 김병익인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문학’론이 아니라 ‘대중문화’론인가. 김병익은 『문지』의 소위 “4K” 동인들 중에서 가장 색다른 개인사적 배경을 가진 비평가이다. 그는 김현(1942년생), 김주연(1941년생), 김치수(1940년생)과 달리 1938년생으로, 8.15 해방을 맞기 전까지 비록 한 학기 동안이지만 ‘국민학교’를 다니며 일제하 식민지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세 사람이 1960년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 때 4.19를 맞이한 동기생인 반면, 김병익은 1957년 입학하여 대학 4학년이 되어서야 4.19를 경험했다. 다른 세 사람이 대학 때부터 강의실에서 교류해온 반면, 그는 1967년이 되어서 비로소 기자로서 비평가 김현을 처음 만났다. 또한 그는 모두 외국문학을 전공한 다른 세 사람과 달리 유일하게 사회과학(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비평가인 동시에 학자로 살았던 다른 세 사람과 달리 유일하게 동아일보 기자로서 대학 바깥에 삶의 터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훗날 자신을 4.19세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떠올릴 때, 다른 세 명과 확연히 다른 그의 개인사는 4.19 세대로서의 자의식이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문지』의 활동과 함께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암시해준다.

그리고 ‘대중문화’라는 대상은 『창비』 및 『세계의 문학』과 구분되는 『문지』의 4.19세대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70년대의 가장 큰 사회변동이 경제발전과 산업화, 도시화였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이에 따른 가시화된 대중사회화의 진전, 소비주체의 형성, 대중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대응은 사회현실의 변화에 대한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창비』가 민중문화를 추구하며 대중문화를 공격하는 문화적 엄숙주의였고 『세계의 문학』이 “적절한 대중성”을

추구하는 상업주의의 입장이었으며 『문지』가 문학주의의 신화 뒤에 가려져 있다는 기존의 관점을 해체하기 위해서, 『문지』의 대중문화에 대한 태도가 어디쯤에 놓이느냐 하는 점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민중주의, 문학주의, 상업주의라는 기존의 잣대들로 이 세 계간지들을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까지 『문지』의 대중문화론은 문학주의, 문화주의, 인문주의 등의 이미지에 가려져 있었을 뿐 제대로 연구된 바 없다.<sup>12)</sup> 대중소설 작가로 돌아선 최인호를 비판한 김현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 『문지』의 대중문화론은 지금까지도 문학주의의 뒷철 아래 숨겨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김병익은 기자 출신으로서 다양한 대중문화 현상을 목도하고 정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몇몇 글들은 이 시기 대중문화와 대중사회에 대한 『문지』 그룹의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넷째, 김병익이 ‘문화’를 매우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회문화비평을 살펴보는 작업이 그의 비평세계 전체를 검토하는 일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나는 이제까지 크게 말해, 문화라는 것을 삶의 의식과 질서라는 폭넓은 뜻으로 써 왔으며 지금까지 서로 다른 것으로 쳐 왔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와 체제 같은 것들을 문화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70년대 문화 현상이라고 말한 셈이다.”<sup>13)</sup> 따라서 협의의 대중문화를 중심으

12)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권성우의 비평 2편이 있는데, 무협소설, 만화, 대중문학 등에 대한 김현의 대중문화 비평을 다룬 글에 비해, 1970년대 청년문화론과 1980년대 문화현상에 대한 김병익의 문화비평을 각각 다룬 글은 매우 소략한 것으로 보인다. 권성우, 「비판과 매혹 사이-김현의 대중문화 비평에 대하여」, 『비평의 희망』, 문학동네, 2001.; 권성우, 「희망의 문화, 문화의 희망-김병익의 ‘문화비평’에 대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16호, 1995 참조.

13) 김병익, 「문화의 민주주의를 향하여」, 『지성과 문화-70년대의 문화사적 접근』, 문학과지성사, 1982, 23쪽. 1990년대에도 그는 “문화 개념에 대해서도 저는 확실한 규정이나 내용적 일관성을 가지고 ‘문화주의’를 말해왔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삶의 포괄적인 양식에 대해서 저는 문화란 말을 쓰기도 했고 권력 행사를 자행하는 정치에 대



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회와 문화에 대한 그의 입장을 추상화시키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 글은 이러한 의미에서 김병익의 평론활동에서 대중문화론이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거나 그의 평론 세계 전체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를 『문지』의 문화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조금 더 효율적인 시험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에 해당한다.

## 2. 자기비판적 거울로서의 대중문화 현상

김병익이 평론가이자 기자로서의 활동을 병행했던 초기의 글들 중에서 대중문화와 관련된 관점을 드러내는 부분들은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다. 그것은 1960-70년대 한국사회의 실제 변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 그는 『시대와 문학의식』이라는 글에서 “우리 문학에서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의식은 대중문화 문제, 근로자 문제, 분단 상황의 문제 등일 것이다.”라고 정리하면서 대중문화의 문제가 시대의 의제 중 하나임을 명확히 했다. “문화적인 이슈로서의 대중문화론에 대해서는 문학 또는 문화적 관점 못지 않게 사회학적 경제학적 그리고 철학적 진단과 가치관의 설정이 중요하다. 그것은 대중문학, 대중사회, 대중문화 등의 유개념과의 상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 쉽게 이야기될 수 없는 이 문제가 오생근, 김현, 김종철 그리고 신학자 서광선에 의해 거론되고 분석되었다는 것은 70년대 이후의 사회적 변모와 문화양식, 현상의 변화, 그에 대한 문학적 심리적 의식의 대응을 반영해야

---

향하는 의식으로서도 문화라는 용어를 개입시켰”다고 고백한 바 있다. 김병익, 성민엽 대담, 『성찰하는 자의 고뇌』, 『김병익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8, 30쪽.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간파했다.<sup>14)</sup> 이것은 그가 대중문화의 문제를 ‘문화’의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분단과 노동의 문제처럼 정치경제적 차원과 동등하게 사회적 차원의 변화와 결부시켜 다루고자 하는 의도였다.

실제로 김병익의 관심은 크게 보면 대중사회, 대중문학, 대중문화에 대한 큰 구도 속에서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현, 김주연, 오생근, 김종철 등 『문지』의 다른 동인과 후발 편집인들처럼 1970년대에 중요한 문학적 현상으로 대두한 대중문학 작품들에 대한 명확한 텍스트 비평이나 이론적 비평을 남기기보다, 사회문화적 변동 안에서 작가들을 다루었다. 예컨대 그의 첫 문학평론집인 『한국문학의 의식』은 조선작과 조해일이라는 당대의 대중문학 작가에 대한 평론을 담고 있지만, 이 글들은 두 사람의 작품을 ‘대중문학’이 아닌 ‘순수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글이다.<sup>15)</sup> 그러나 그는 여러 대중문학 작가들을 70년대 한국사회의 대중사회화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이 시기에 최인호, 조해일, 조선작, 한수산, 박완서 등 대중적 작가들이 탄생한 것은 “문학사회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가 대중화되어 있고 대중적 영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작가들이 스스로 “대중의 혹은 민중의 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대중들과 쉽게 호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명한 귀결”이라고 바라보았다.<sup>16)</sup>

14) 김병익, 『문학에 대한 몇 가지 시감』, 『문화와 반문화』, 문장사, 1979, 61쪽. (원문은 『시대와 문학의식』, 『세대』, 1978년 12월호.)

15) 김병익, 『호모 파베르의 패배와 현실-조해일론』, 『삶의 치열성과 완벽성-조선작론』, 『한국문학의 의식』, 동화출판공사, 196, 258, 271쪽. 실제로 이 두 편의 글은 조해일 소설의 “양식화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조선작의 소설이 “단순한 웃음거리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보면서 “문학적 상상력, 구성력, 문장력의 종합”을 살펴보는 글이다.

16) 김병익, 『70년대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9, 96-98쪽.

그의 진단은 70년대 사회와 문학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에서 비롯된다. “문학의 양상과 의식에 관한 한 우리는 예상보다 깊이 대중소비문화에 침윤되고 있다. 텔레비전, 주간지, 여성지, 점술, 스포츠 같은 것이 그러한 양상의 전형적인 표징이다. 이와 더불어 문학 역시 고고하고 창조적이며 현학적이고 선택받은 자의 것이란 자리에서 일상적이고 소비적이고 쉽고 평이한 대중의 소유물로 분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70년대 작가들이 대중의 일원임과 동시에 그들의 문학이 대중화로 확산될 것도 필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별들의 고향』이 발표된 73년 이후 『겨울여자』 『휘청거리는 오후』 『부초』 『도시의 사냥꾼』 등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잇달아 연쇄 폭발하고 주로 70년대 작가들이 중심으로 된 수필집, 콩트집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도 이해된다.”<sup>17)</sup> 김병익은 대중소비사회의 형성과 심화에 따라 박완서, 최인호, 한수산, 박범신 등을 통해서 대중문학과 순수문학의 구별이 무너지는 사회상황에 근거하여, 대중사회 현상을 최대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포용적 태도가 대중문학과 대중문화에 대한 완전한 긍정이자 수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다만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회현상을 열린 태도로 읽어내고자 했을 뿐이다.

이러한 태도는 대중문화를 옹호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기보다 당시 사회문화적인 풍토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의 표현을 직접 빌리면 “대중화라든가 상업주의 시비 같은 것이 윤리적 억압의 한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한 작품이 안이하든가 통속적이라는 문학적 비평 위에서 논란되기보다 퇴폐적이라든가 반도덕적이라는 이유로 비판되는 것”을 거론하면서, 소위 ‘통속적인 대중문화는 “튼튼한 구조”와 “창의적인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작품 바깥의 기준 가

17) 앞의 글, 97쪽.

치에 부닥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중문화와 문학을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창작은 오히려 진정한 퇴폐와 진정한 반도덕을 통해 그 시대가 찾아야 할 올바른 가치관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sup>18)</sup> 여기서 그가 옹호하는 ‘퇴폐’와 ‘반(反)도덕’에 “진정한”이라는 수사가 붙는 것은, 그가 퇴폐적이고 반도덕적이라고 간주되는 모든 종류의 대중문화를 다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대중문화와 대중문학을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병익은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제시하고자 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대중문학과 대중문화가 퇴폐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은 바로 우리가 퇴폐적이기 때문이라는 자아비판적 진단이다. “가령 한 베스트셀러 작품이 퇴폐적이고 병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쓴 작가의 부도덕성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 전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고 상당수의 우리 자신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에 먼저 주목해야 하며 따라서 그 퇴폐성과 병적인 것이 우리 내부와 일상에 음험히 숨어 있음에 각성해야 한다. 잘못된 곧 작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고 오히려 반가워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 작가들을 우리는 높이 존경해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병들을 작가가 대신해서 앓아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sup>19)</sup> 이 구절은 대중독자와 엘리트 작가의 구별, 대중문학과 순수문학의 구별을 무너뜨리려 했던 시도로 볼 수 있다. 김병익의 논리에서 작가는 병들고 아픈 사회와 무관하게 예술성을 추구하는 존재도 아니며, 오히려 대중들의 욕망과

18) 이 단락의 인용은 모두 위의 글, 『문학에 대한 몇 가지 시각』, 59쪽에서 인용한 것이다.

19) 김병익, 『70년대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9, 97쪽.

퇴폐성을 체현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대중작가를 비판하는 화살은 오히려 사회와 대중 자신의 부도덕성과 퇴폐성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그가 1968년 이후의 '주간지' 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글<sup>20)</sup>에서 보여준 관점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우선 한국의 주간지 열풍 현황을 분석하고, 주간지가 아닌 '일간 신문'과 '월간지'들이 주간지의 "저속성", "통속성", "퇴폐성", "센세이셔널리즘(선정주의)" 등을 얼마나 가혹하게 비판해왔는가를 개괄했다. 물론 김병익은 주간지의 이러한 성격들을 부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안에는 불량주간지가 범람할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가장 통렬한 부분은, 옐로우 저널리즘이 출간주체부터 편집원칙, 독자 설정에 이르기까지 정론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외국 상황과 한국 주간지 시장을 비교하는 부분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일간신문사와 주간지사는 대개 별도로 나뉘어 있으며 신문은 일요일판으로 대신하고 있지만 편집체제는 일반 주간지와 달리하고 있다. 일반 주간지는 타임이나 뉴스위크에서 보듯 뉴스와 리뷰 중심이며 섹스나 스캔들은 군소 또는 지하잡지에서 취급한다. 일본의 경우는 신문사 대부분이 여러 종류의 주간지를 내거니와 대상독자를 각각 가르고 있으며 따라서 저급으로부터 고급까지,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전문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1968년부터 1970년대까지 붐을 이룬 한국의 주간지 시장은 이와 다른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대중문화를 이끈 주역 중 하나인 한국 주간지에 대한 그의 분석은 다소 길지만 경청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간지의 특색은 첫째 일간 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나 전문성이 배제되어 있고 대상독자를 구분하

20) 김병익, 『한국주간지의 생리와 병리』, 『지성과 반지성』, 민음사, 1974, 326-329쪽.

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의 공익성과 공기성(公器性)이 강조되어 독자들이 신문사의 발행분에 대해서는 우선 믿고 들어가는데 주간지가 아리랑 등 대중월간지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중지 이상의 신뢰를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간지 자신이 이를 이용하여 명분은 신문과 같은 보도성과 종합성의 체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 상황은 일본처럼 주간지가 공익성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일간신문사에서 나오고 있다는 유사성 이상을 내포한다. 왜냐하면 일본처럼 대중지와 일간지의 위상과 독자층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간한국』, 『선데이서울』, 『주간경향』, 『주간중앙』, 『주간조선』 등은 각 신문사의 이름을 따라 제호가 지어졌고, 각 신문사들은 이 주간지들을 각 신문들의 “자매지”의 위치에 놓고 홍보했다. 예컨대 1964년 창간된 후 한국의 주간지 열풍을 주도한 『주간한국』은, 『한국일보』 및 한국일보사가 발행하는 경제지 『서울경제신문』, 영자지 『코리아 타임즈』, 소년지 『소년한국일보』 등과 자매지로서 동일한 위상 위에서 홍보되고 판매되었다. 이는 대중주간지들의 매체적 위상이 서구와 달리 옐로우 저널리즘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대중적 신뢰도를 얻고 들어가는 시장구조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주간지의 둘째 특성은 비일요판적(非日曜版的)”이라는 데 있다. 주간지가 일요일마다 일간신문의 연장선 아래서 평일판에서 다루지 못한 뉴스를 편집하는 특별판이 아니라 완전히 층위가 다른 스캔들 수준의 뉴스를 다루는 지면이라는 것이다. 즉 한국 주간지는 일간신문사가 간행하면서도 일간지의 독자와 주간지의 독자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발행주체가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는 층위의 기사들을 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신문인들이 주도했던 ‘신문윤리위’가 자신들의 소속회사가 발행하는 주간지의 윤리위반을 스스로 문제 삼기 어려

왔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 주간지의 셋째의 특성은 “대부분의 주간지가 집으로 배달되거나” “가두판매로 보급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주간지를 한번 읽고 “거리나 지하철의 휴지통에 버리”는 일본과 달리 집에서 주간지 기사를 소비하게 만들게 하는 원인이었다.<sup>21)</sup> 넷째 특성은 바로 한국 주간지의 “편집, 기획이 상업주의적인 옐로우성(性)”이라는 점인데, 그는 온통 “인기인의 스캔들, 패륜적인 사건, 혐기적인 범죄, 외설적인 이야기들”만 다루는 주간지들도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보면서, 『타임』, 『뉴스위크』처럼 “격조 높은 주간지”가 옐로우 저널리즘과 공존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을 문제로 삼았다.

김병익의 분석을 따라가면, 주간지의 문제점은 엘리트 문화와 구분되는 통속적 대중문화의 문제점이라기보다 주류 엘리트들의 상업주의에서 나온다. 주간지 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주간지를 가혹하게 비판하는 일간신문 또는 월간지의 발행주체들이다. 뉴스의 공익성을 주장하면서 여러 사실들을 취재하고 편집하는 일간 또는 월간 매체의 발행인 또는 엘리트 기자들과 주간지를 만드는 주체들은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판매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일간신문사들의 이름과 공신력, 유통과 판매구조 등을 그대로 활용하고, 일간신문의 독자들을 그대로 통속적 주간지의 독자로 흡수해버리는 주체들은 엘리트 기자들인 셈이다. 즉 저속하고 퇴폐적인 주간지 문화의 문제는 주류 엘리트들이 추종하는 상업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허한 비판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대중문화론은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사회

21) 1976년 발표된 박완서의 어느 소설은 자기 집 “뒷간”에서 철 지난 주간지를 곱씹어 읽는 어떤 중년 남성을 묘사하고 있다. 박완서, 『어떤 야만』,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06, 49-50쪽 참조.

비판과 자기성찰을 시도한 결과였다. 그것은 대중문화의 퇴폐성을 인정 하되, 그것을 대중문화의 일부 소비층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 구조와 주류 엘리트들 자신의 문제로 보려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김병익은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글을 써야 했던 어느 토요일, 하루 종일 “『삼인조』, 『쇼쇼쇼』, 『자유전선』, 『아버지』, 『무법지대』 등의 TV연속극 과 TV쇼”를 보다가, 친구와 “내기 바둑”을 두고, 영화관 단성사로 가서 영화(『졸업』)을 보고 돌아온 하루를 돌아보고, 마감 스트레스를 이겨내 기 위해 하루 종일 대중문화로 도피했던 자신에게서 “소시민적 자족”을 발견하기도 했다.<sup>22)</sup> 그는 대중문화의 향유자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층을 여성, 어린이, 하층민 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대중문화와 한뫼음으로 비난하던 당대 대중문화 담론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각이었다.<sup>23)</sup>

### 3. 청년문화 옹호론: 퇴폐와 자유의 청년문화

김병익의 초기 대중문화론이 소위 자아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서도 보수주의적 태두리를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과 서구의 청년 문화에 대한 글들은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지점을 보여준다. 전국이 떠들썩했던 1974년 청년문화 논쟁이 그의 『동아일보』 3월 29일자 기사 『오늘날의 ‘젊은 偶像’들』에서 발단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22) 김병익, 『대중문화의 비판』, 『지성과 반지성』, 민음사, 1974, 250쪽.

23) “1960-70년대 TV와 라디오의 선정성과 저속성, 반지성적 경향을 비난하는 당시의 대중문화 담론들이 여성, 청소년, 하층민들을 통제하려는 남성 중심적 지배전략의 일환”에 대해서는, 줄고,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제 32집, 2011, 198-205쪽.



청년문화 논쟁 과정을 스스로 정리한 『청년문화와 매스컴』은 종종 인용되고 있다.<sup>24)</sup> 그런데 김병익이 서양의 청년문화에 대해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주목했으며 초기에 여러 편의 글을 썼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첫 번째 실마리는 1969년 12월에 발표된 『세계의 젊은이들』이라는 글로, 이 글은 미국의 ‘젊은 세대’들의 풍속에 대하여 기사다운 충실한 정보소개와 비평가로서의 판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는 뒤이어 1970년 『한국의 젊은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청년세대를 옹호하는 두 편의 글을 발표했다. 그가 미국의 청년문화가 “매스컴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소개”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비평가로서의 데뷔작이 “세대마다 자기의 독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있는 『문단의 세대 연대론』<sup>25)</sup>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미국의 청년세대가 가진 독특한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적절해 보인다.

『세계의 젊은이들』은 당대의 큰 사건이었던 사상 최대의 음악축제 우드스탁 페스티벌과 1969년 10월 미국에서 전개된 사상 최대의 반전 데모 모라토리움 데이의 시위를 다루면서 미국 청년문화<sup>26)</sup>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유럽의 68혁명과 일본의 전공투 운동까지 간략하게 다룬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의 중심은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의 스튜던트 파워나 반체제 사회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보다 히피 문화, 환각제 사용, 섹

24) 필자는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 - 1970년대 청년문화/문학의 스타일과 소비풍속』(『상허학보』 제 15집, 2005.)에서 이미 청년문화 논쟁과 풍속을 다루면서 김병익의 몇몇 글들을 전거로 사용했으나, 이 글은 청년문화가 아니라 김병익의 대중문화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청년문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25) 김병익, 『문단의 세대연대론』, 『사상계』 1967년 12월호, 35쪽.

26) 이에 대해서는, 로널드 프레이저, 『1968년의 목소리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안효상 옮김, 박중철출판사, 1999, 395-433쪽 참조.

스의 자유과 같은 청년세대의 새로운 문화에 쏠려 있다. 학생들의 사회 저항운동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정치적 각성에서 찾기보다 일체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모색하려 하는 히피적 의식에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짧은 글들에 드러난 김병익의 청년문화에 대한 관점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난하게 읽히기 때문에, 1960-70년대 대중문화에 대한 담론지형 속에서 들여다보아야만 비로소 그가 매우 드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김병익이 이 글에서 분명하게 가시화시킨 것은 청년문화가 대중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금은 당연하게 보일 수 있어도, 당시에는 기성의 문명을 모두 거부하고 제도를 벗어난 자유를 만끽하는 청년문화와 그가 그 근본으로 파악하는 히피문화는 대중문화 현상으로 각인되지 않았다. 비록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대중음악에 취한 젊은이들의 축제였을지언정, 당시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대중문화의 향유 자체보다 온갖 상업성과 거리를 둔 것처럼 보이는 라이프스타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드스탁 음악제의 청중들이 모두 히피스타일이었으며 그 모습이나 환각제의 사용, 성의 개방이 히피 그대로였”다는 점이 중요했던 것이다. 가난하고 더러운 옷차림, 일정한 주거지를 갖지 않는 공동체 문화, 문명을 거부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쉽게 대중문화 현상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예컨대 “강렬한 자연에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거처가 산속 나무 밑이나 공원 벤취이며 전기면도기나 샤워를 피해 수염과 머리털을 뿔수룩히 기르고 며칠씩 목욕을 하지 않는”<sup>27)</sup> 히피들의 문화는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문화나 제도권의 삶과 동떨어져 보인다.<sup>28)</sup>

27) 김병익, 『세계의 젊은이들』, 『지성과 반지성』, 민음사, 1974, 222, 224, 227쪽.

28) 히피문화의 라이프스타일과 반문명성에 대해서는, 켄 고프먼 & 댄 조이, 『카운터컬처』, 김세미 옮김, 텍스트, 2010, 400-405쪽 및 451-454쪽 참조.

그러나 김병익은 청년문화가 곧 대중문화는 아니지만, 청년문화는 대중 문화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문화현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우드스탁 페스티벌을 보고 충격을 받은 『타임』지가 “본질적으로 순진무구한 현상”이라고 말한 것을 고쳐서 “순진무구한 대중문화의 소산”이라고 표현하고, 히피 문화의 제 1의 특성이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중 문화”라고 썼다.

이것은 그가 쓴 1974년의 『동아일보』 기사 『오늘날의 젊은 ‘우상들』이 청년문화 논쟁을 뒤늦게 촉발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김병익의 『한국의 젊은이들』보다 먼저 서양과 한국의 청년문화를 유비관계에 놓고 처음으로 담론화시킨 것은 1970년 초 남재희가 『세대』에 썼던 『청춘문화론』이었다. 매우 학구적으로 쓰여진 남재희의 글은 당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사이에 일고 있던 통기타 붐을 언급하면서도, “우리에게 청춘문화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프리섹스나 스튜던트 파우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청춘문화의 일부일 수 있기는 하’지만 “필수 불가결의 요소는 아닌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온건한 글이 반향을 일으킬 리는 없었다.<sup>29)</sup> 김병익은 이 글에 감명을 받아 그 직후 『청년문화의 태동』이라는 짧은 신문 기사를 썼는데, 이 글은 청년세대가 사회와 문화의 전방위에서 힘을 가지는 세대로 부상하는 점을 스케치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신성일, 엄앵란의 청춘영화와 조영남, 최영희의 학생가수 활동, DJ 최동욱 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청년들이 “대중문화의 주수요층”이라는 것을 지적했지 이들을 청년문화의 아이콘으로 다루지는 않았다.<sup>30)</sup> 또한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 대학생들에게 ‘통·블·생’이 유행하고 있었을 지적하며 젊은 세대들의 풍속을 다룬 글들은 70년대 초

29) 남재희, 『청춘문화론 젊은 세대의 문화형성고』, 『세대』, 1970년 2월호, 126쪽, 128쪽.

30) 김병익, 『청년문화의 태동』, 『동아일보』, 1970년 2월 19일.

반부터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들은 하나같이 이를 일상 생활의 새로운 '풍속' 차원에서 다루었을 뿐 대중문화의 소비라는 차원에서 다루지 않았다. 즉 그때까지 기성문화를 거부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대중문화 스타의 이상화가 같은 차원에 놓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김병익의 1974년 기사는 바둑기사 서봉수 외에도, 상업주의적인 대중소설로 접어든 소설가 최인호, 대학생 가수 양희은과 김민기, DJ 이장희, 코메디언 이상룡을 청년들의 '우상'으로 거론한 것이다. 그 자신도 논쟁의 시발점이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기사의 문제적인 요소는 '대중문화'의 인기스타들을 청년문화의 우상으로 등치시켰다는 데 있었다. 나중에 그는 사람들이 "우상"의 뜻을 "idol과 hero의 차이"를 무시하고 "착각 오독"한 것이 문제라고 했지만,<sup>31)</sup> 그의 말대로 이 우상이 영웅이 아니라 아이돌을 의미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아이돌"이란 결국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대중들이 소망하는 이상형이 응집된 어떤 대상을 가리키며, 아이돌이라는 대중문화 상품을 통해 대중들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공통의 세대감각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기사는 처음부터 서구 청년문화의 근본을 대중문화와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는 히피문화에서 찾았던 김병익으로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글이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서구의 청년문화를 동경하거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도 당황스러운 시각이었다. 왜냐하면 저속하고 퇴폐적인 대중문화와 자유롭고 이상적인 청년문화를 연결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발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청년문화론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대학생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은, 그런 "따따라들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는" 이유가 컸다. 또한 74년의 논쟁이 거의 정리될 무렵, 서양의 히피적인 청년문화는 "반

31) 김병익, 『청년문화와 마스크』, 앞의 책, 217쪽.

문명적”인데 반해 한국의 청년문화가 발전된 서양의 청년문화를 따라하는 “문명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청년문화가 아니라는 정치학자 노재봉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sup>32)</sup> 이것을 다시 말하면, 대중문화와 무관한 청년문화는 청년들의 저항정신을 담은 문화일 수 있지만,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의 매스미디어를 등에 업은 대중문화와 연관된 청년문화는 결코 진정한 청년문화일 수 없다는 논리이다. 서구 청년문화의 반(反)문명성이 한국의 청년문화에서는 제거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노재봉의 비판은 서양을 모방하는 한국 청년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중문화를 멸시하던 당대의 지배 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병익이 히피의 본거지 샌프란시스코 언더그라운드들의 히피문화를 보고 돌아온 시인 황동규의 글을 인용해가면서 히피문화를 긍정하는 태도로 이 글을 쓴 것은 매우 이채롭다. 황동규는 “나까지 합쳐 열다섯이 혹은 이야기하며 혹은 춤을, 노래를, 애무를 하며 보내는 하룻밤, 내가 선입관으로 가진 난잡성을 볼 수가 없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김병익은 우드스탁 페스티벌에 모인 청중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인디안처럼 뿔짚으로 만든 움막 속에서 침식했고 몰려든 젊은이들은 먼지를 뒤집어써 시커먼 얼굴에 수염과 머리는 자랄대로 자라고 옷은 입거나 말거나 제멋대로였다. 이들은 노래에 취하고 환각제에 취했다. 벌거벗고 즉흥무를 추는가 하면 근처의 멧에 누드로 뛰어 들어 남녀 가림 없이 광적인 상태로 접어들었다.”<sup>33)</sup> 그런가 하면 “환각제를 사용하는 평화주의자”들은 “방종한 섹스란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32) 노재봉, 이어령, 최인호, 한완상, 현영학, 오갑환 좌담, 『심포지움 한국의 청년문화 - 유행이나 반항이나』, 『신동아』, 1974년 7월호.

33) 김병익, 『세계의 젊은이들』, 앞의 책, 220, 225, 226쪽.

성의 자유를 누린다. 이 글이 미국 내의 마리화나 중독 문제까지 다루는 것을 보면 기자의 본분에 충실한 ‘사실’의 비판적 나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비판적 이성을 뚫고 나오는 히피문화에 대한 호감과 동경을 느낄 수 있다. 더구나 김병익이 이 글을 썼던 시기는 1969년 10월 클리프 리처드의 그 유명한 내한공연이 열린 지 한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이화여대 대강당 무대에 선 외국의 가수를 향해 팬티를 집어던지는 여대생들에 대해 경악과 우려 섞인 비판이 포화처럼 쏟아지던 시점에, 이보다 더 방종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 묘사는 결코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sup>34)</sup>

청년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뚫고 자꾸만 표면으로 표출되는 판단들은 비평가 김병익의 문화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청년문화를 다룬 다른 논자들이 ‘한국’과 ‘서구’의 청년문화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후자만을 인정하려 했던 것과 달리, 그는 『한국의 젊은이들』이라는 두 편의 글에서 두 문화를 등치시키고 상호간의 정신적 연관성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앞서 『세계의 젊은이들』에서 서양 청년문화의 첫 번째 특성이 “대중문화”와의 연관성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서양의 차이를 두지 않고 “우드스톡으로부터 서울의 시민회관에서 보는 것과 같은 대중가요”를 보았듯이, 1970년의 선구적인 이 글 두 편에서

34) 이러한 태도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자로서의 그의 입장과 명백히 상반되는 것이다. 1969년 그가 『동아일보』 기자로서 쓴 기사들은 어느 평론 집에도 실려 있지 않지만, ‘4.19’로부터 9년이 지나 60년대를 마감하는 당시의 젊은 세대들을 다룬 그의 기사들은 쌍쌍파티, 주간지, 테이트, 터틀넥, 취직문제집으로 가시화되는 대학생들의 “소시민화”를 스스로 비판하고 “역사의식과 정치감각”을 갖출 것을 요청하고 있다. “퇴폐성”을 뚫고 봉기한 4.19를 회고하라는 이 기사들은, 저질, 퇴폐, 통속의 대중문화를 시종일관 비판했던 1960-70년대 주류 담론 안에 갇혀 있다. 따라서 다른 지면에 개인적인 글을 발표하는 비평가로서의 김병익이 보여주는 태도야말로, 그의 대중문화에 대한 시각이 제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병익 외, 『오늘의 젊은 그들(완) - 영원한 4월』, 『동아일보』, 1969년 4월 19일.

김병익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언더그라운드와 반문화(counter-culture)의 기수들을 한국의 젊은 청년들과 등치시켰다. 그의 글에서는 발자크가 소설에서 창조한 프랑스 골방 속의 언더그라운드의 문화와 “동경의 어두운 하숙방에서 노닥거린 김동인, 전영택, 주요한”의 동인지 『창조』, 김성수, 현상윤, 최린의 3.1운동이 동일한 가치선상에 놓여 있었다. 그는 “전후의 바라크에서 이어령 유종호의 문학이 나왔으며 값싼 하숙집 구석방에서 4.19와 60년대 문학이 꽃을 피웠다.”고 하면서, 한국 문화의 상징들이 가난한 젊은 세대들이 즐긴 하위문화의 저층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sup>35)</sup>

즉 히피들의 남루한 생활과 노닥거림은 1960년대 서구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젊은 세대들의 정신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대중문화는 과거처럼 대중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우민화의 방편에 그치지 않고, 1960년대라는 시기에 세대를 ‘연대’시키는 힘으로 재평가되었다. 그는 하필 60년대에 젊은이들이 비로소 새로운 문화층으로 형성된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하면서, “매스컴의 발전이 대학생을 비롯한, 분산된 젊은이들을 결집시키며 공통의 경향으로 연결시켜준다.”고 평가했다. “어른들은 퇴폐적이고 유치하다며 걱정하고 있는 저변문화적 생활”에서 젊은이들은 “싱싱하고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20대의 특징은 대중문화에 이르러 더욱 완연해진다.”<sup>36)</sup> 그것은 그가 묘사하는 대로 신성일과 엄앵란의 청춘영화, 20대 영화감독 정진우, 말괄량이 시리즈 영화, 엘비스 프레슬리와 클리프 리처드 팬 클럽, 학생기수 조영남과 최영희의 활동, 이어령과 전해린의 대중적 에세이를 넘나드는 대중문화의 향연 속에서 표출될 수 있는 감수성이다. 대중문화의 자유분방

35) 김병익, 『한국의 젊은이들 I : 청년들의 영토』, 앞의 책, 234-238쪽.

36) 김병익, 『한국의 젊은이들 II : 한국의 청년들의 문화』, 앞의 책, 245-246쪽.

합과 퇴폐를 긍정하는 태도는, 그가 4년 후 청년문화 논쟁을 정리하면서 “68년의 미국 청년들에게 일어났던 우드스톡 페스티벌이란 최대의 집회와 워싱턴, 뉴욕에서의 반전 시위를 동시에 관찰한 사람이라면 요즘 청년들의 장발과 고고, 혹은 무책임성과 이탈을 그렇게 단적으로, 그리고 고지식하게 『퇴폐』로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sup>37)</sup>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였다.

1974년 논란의 불씨가 되었던 기사라든가 논쟁과정을 정리한 『청년문화와 마스크』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초기의 글들에서 김병익이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회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퇴폐성과 자유에 대한 요청이다. 히피문화에 대한 동경, 반체제적이고 반제도적인 모든 행동들이 가능한 상태에 대한 갈망, 대중문화의 탐닉과 광적인 도취를 통해 발휘되는 자유의 구가에 대한 전망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퇴폐와 자유를 요청하는 이 감수성은 지금까지 균형감과 비판적 지성으로 상징되는 김병익의 비평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의 초기 청년문화론에는 이 점이 잘 드러나 있다. 그것이 대중문화에 퇴폐의 딱지를 붙이고 거의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주류 담론과 지배 이데올로기와 얼마나 거리를 둔 것인지,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대한 폄하나 좌절 없이 서양 문화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드문 것인가 하는 점은, 대중 문화를 일관되게 비판했던 1960-70년대 대중문화 담론의 지형 속에서 들여다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다.

아마도 김병익이 청년문화에 대해 훨씬 너그러울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청년문화가 바로 엘리트문화와 대중문화가 혼치 않게 결합된 문화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청년문화가 정치적 행동주의나 반문명주의적 태도보다 대중문화의 향유를 통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청년 주

37) 김병익, 『청년문화와 마스크』, 앞의 책, 214쪽.



도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엄숙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기성문화에 대한 반발을 보여줄 수 있었던 데 있다. 아직 가난하지만 사실상 미래를 보장받은 특권층이기도 했던 이 시기 대학생들이 대중문화의 적극적 향유를 통해 기성문화와의 ‘구별짓기’를 시도한 것이다. 일견 엘리트적 지식인이었던 김병익이 위선 없이 청년문화를 통해 대중문화의 퇴폐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 4. 문화민주주의: 문화의 평등과 대중문화의 역할

김병익의 초기 대중문화론이 바라보았던 방향은 바로 대중문화의 소비가 약속해주는 문화적 평등의 차원이다. 그는 대중문화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자 노력했고, 대중문화의 향유자로서 자족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영화 텔레비전 주간지 야구 축구 권투 레슬링 등의 스포츠, 바둑 경음악 쇼”들을 긍정했다. “평범한 욕구를 채워주는 문화수단도 있어야 하며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영동한 자극도 필요하며 어떤 창조 행위를 하기 전과 후에 재창조를 위한 휴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가 찾아낸 대중문화의 존재의 이유 중에서 훗날 좀 더 완고한 보수주의자로 변모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은, 바로 대중문화가 문화적 평등주의 또는 문화민주주의를 일구는 데 기여한다는 시각이다.

그는 대중문화의 활성화는 경제적으로 대량생산구조를 약속하는 물질적 발전을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문화소비의 “주체가 귀족이나 승려가 아니라 노동자 또는 샐러리맨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만들고 즐기는 개인주의적 단계를 벗어나 다수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수가 동시에 즐기며 대중심리로서 반응하게 되는”

양상을 띠는 점을 인정했다. 엘리트들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문화적 위계를 없애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의 교류와 자극이 없이는 문화의 발전이 없으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소외를 인정하면서도,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에는 유기적인 친화력이 작용하고 있어 하이브라우는 대중문화에서 삶의 원천적인 활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급예술로 승화시키며 로우브라우는 고급문화로부터 적극적인 의미와 자극을 부여받고 자신의 위치를 상승시켜 고급한 창조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다”고 보고 루이 암스트롱, 헨리 벨라폰테, 거슨 등의 재즈음악을 그 예로 들었다.<sup>38)</sup>

이를 통해 김병익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약속하는 문화민주주의의 사회이다. 1980년대 초반 쓰여진 그의 선언적인 문장이 이를 보여준다. “분명한 지표로서 우리가 대중문화의 전개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시민문화 혹은 민주주의 문화로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의 〈시민〉 혹은 〈민주주의〉는 근대적 자아와 사적 공적 책임 의식, 권리와 의무의 참여, 그리고 자유와 평등 박애 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체계 등등의 고전적 개념에 의거한 가치들이며 문화는 이러한 가치들의 실천을 위한, 실천의 결과로 빛어진 인간 행위를 뜻한다. 이 전제는 어찌면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도출된 것일지도 모른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 그리고 문화적 과학주의가 수세기에 걸친 전개와 변화를 통해 생산해낸 것 중의 하나가 대중문화일 것이며 그것이 부정적 양상으로서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념으로 설정된 것이 시민문화 혹은 민주주의 문화일 것이기 때문이다. …… 대중문화→시민, 민주주의 문화란 정치적 폐쇄성

38) 김병익, 『대중문화의 비판』, 『지성과 반지성』, 민음사, 1974, 각각 252쪽과 255쪽에서 인용.

과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무책임과 문화적 획일성을 극복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이란 방향으로 귀착되는 것 같다.”<sup>39)</sup> 그가 대중문화를 저속하고 퇴폐적인 상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평등한 문화로 지양될 때 대중문화가 문화적 평등과 자유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김병익의 대중문화론은 다른 지면에서 더 자세하게 분석되어야 할 『문지』, 『창비』, 『세계의 문학』 동인 및 필자들이 1970년대에 함께 전개한 대중문화와 문화론을 결합시킨 것이기도 했다. 그의 문화적 민주주의는, 『문지』 동인이었던 김현의 「대중문화의 새로운 인식」<sup>40)</sup>, 김주연의 「대중문화 논의의 제문제」<sup>41)</sup>, 오생근의 「대중문화이란 무엇인가」에서 논의된 대중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포용적이고 열린 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지』의 후기 동인이지만 대중문화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김종철이 『세계의 문학』에 썼던 「대중문화와 민주적 문화」<sup>42)</sup>의 입장, 그리고 민중문학이 지향하는 대중성의 민주주의적 내포를 보여준 『창비』 동인 백낙청의 「문화의 대중성과 예술성」<sup>43)</sup> 등을 종합하여 도달한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4.19세대의 문화적 감수성을 주도했던 『문학과지성』, 『창작과비평』, 『세계의 문학』의 관점은 사회적 자유와 문화적 평등에 대한 지향을 기반으로 삼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된 것이다.

39) 김병익, 「문화구조에 대한 문화적 성찰 - 대중문화의 향방」, 『지성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2.

40) 김현, 「대중문화의 새로운 인식」, 『뿌리깊은 나무』, 1978년 4월호.

41) 김주연, 「대중문화 논의의 제문제」, 『현상과인식』, 1978년 12월호.

42) 김종철, 「대중문화와 민주적 문화」, 『세계의 문학』, 1978년 여름호.

43) 백낙청, 「문화의 대중성과 예술성」, 『민중문화와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 참고문헌

- 곽상순, 『계간 『문학과 지성』이 1970년대 한국소설에 끼친 영향 연구 : 김현의 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55집, 2012.
- 권성우, 『비판과 매혹 사이-김현의 대중문화 비평에 대하여』, 『비평의 희망』, 문학동네, 2001.
- 권성우, 『희망의 문화, 문화의 희망-김병익의 '문화비평'에 대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16호, 1995.
- 권오룡, 『주체성과 언어의식 : 『문학과지성』의 인식론』, 『인문논총』 제 10집, 2010.
- 김민정, 『1970년대 '문학 장과 계간지'의 부상 :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11.
- 김병욱, 『현대 소설에 투영된 역사의식』, 『창작과비평』, 1973년 봄호.
- 김병익 외, 『오늘의 젊은 그들(완) - 영원한 4월』, 『동아일보』, 1969년 4월 19일.
- 김병익 외,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2.
- 김병익, 『지성과 반지성』, 민음사, 1974.
- 김병익, 『한국문학의 의식』, 동화출판공사, 1976.
-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9.
- 김병익, 『지성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2.
- 김성환, 『1960-70년대 계간지의 형성과 특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 30집, 2010.
- 김윤식, 『3대 계간지가 세운 문학의 기틀』, 역락, 2013.
- 남재희, 『청춘문화론 젊은 세대의 문화형성고』, 『세대』, 1970년 2월호.
- 노재봉, 이어령, 최인호, 한완상, 현영하, 오갑환 좌담, 『심포지움: 한국의 청년문화-유행이나 반항이나』, 『신동아』, 1974년 7월호.
- 박윤영, 『『문학과지성』의 형성과정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2012.
- 박수현, 『1970년대 계간지 『문학과지성』 연구: 비평의식의 심층구조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 33집, 2009.
- 성민엽 편, 『김병익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8.
- 송은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 - 1970년대 청년문화/문학의 스타일과 소비풍속』, 『상허학보』 제 15집, 2005.
-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제 32집, 2011.

- 전상기, 『1960·70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 : '문학과 지성'·'창작과 비평'의 분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3.
- 하상일, 『김현의 비평과 『문학과지성』의 형성과정』, 『비평문학』 제 27호, 2007.
- 하상일, 『전후비평의 타자화와 폐쇄적 권력지향성 : 1960~70년대 '문학과지성』, 『한국문학논총』 제 36집, 2004.
- 홍정선, 『70년대 비평의 정신과 80년대 비평의 전개양상』, 『역사적 삶과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6.
- 로널드 프레이저, 『1968년의 목소리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안효상 옮김, 박종철출판사, 1999.
- 켄 고프먼 & 댄 조이, 『카운터컬처』, 김세미 옮김, 텍스트, 2010. 내성, 『김내성대표 문학전집』(전10권), 삼성문화사, 1983.
- 김내성, 『태풍』, 『매일신보』, 1942.11.21-1943.5.2.

## Abstract

### Kim Byung-ik's Discourse on Popular Culture and Cultural Democratic Consciousness of 4.19 Generation

Song, Eun-Young (Yonsei University)

This essay was intended to get over the established frame on 1970s' literary fields and 4.19 generation's identity and directivity by analyzing one of the main members of *Literature and Intellectual*, Kim Byung-ik's discourse on popular culture. His essays and articles on popular culture in late 1960s and 1970s, showed a new perspective on *Literature and Intellectual* dealt with in terms of elitism, conservatism and literature-centrism. Although he agreed with the ruling discourse to criticize popular culture's vulgarity and lewdness, he supported the Youth Culture based on popular culture because it helped to realize the more freedom and equality. He didn't separate popular culture's vulgarity with elites' commercialism. His announcement that popular culture would help a development of cultural democracy, proved that 4.19 generation's cultural directivity stemmed from their desire to realize political freedom and social equality.

(Key Words: Kim Byung-ik, *Literature and Intellectual*, 4.19 generation, popular culture, Youth Culture, political freedom, social equality, cultural democracy.)

Ⅰ 위 논문은 2014년 10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